

광양시, 도심지 녹화경관 유지 관리 본격 착수

예산 30억 원 투입...연인원 2만 명 직접고용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광양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지역 내 조성된 도시숲, 녹지, 정원, 가로수 등을 정비해 아름답고 쾌적한 녹화경관 유지·관리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도시녹지 관리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연인원 2만 명의 직접고용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녹지 일자리를 제공해 향후 민간부문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내 분산된 도시녹지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서 녹색환경도시를 구축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관리

시는 도시숲 및 시설녹지 내 수목,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지역 내 녹지대 35ha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조경수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를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과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돌발해충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태풍, 가뭄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수목 관수와 피해목 제거를 적기에 시행하고, 녹지대 내 잔디 생육환경 개선과 풀베기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산림서비스 도우미 2명(도시녹지관리원 1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1명)을 2월 중 채용해 도시녹지 실태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와 도시숲·학교숲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 꽃이 있는 도시경관 조성관리

시는 시민들에게 꽃이 있는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꽃잔디와 장미동산, 스마트가든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2015년부터 가로수, 락죽지, 중앙분리대, 녹지대 등에 심은 5백만 본의 꽃잔디에 대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식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광양읍 서천변, 중마동 중동근린공원, 마동유원지 등 6개소에 식재된 6만 여주의 장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500여 주의 장미를 보식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며, 노후된 편의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가든과 미세먼지 차단숲의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시숲 정원관리단을 운영한다.

도시숲 정원관리단은 비영리법인 등 사회단체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정원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시는 2월 중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 3월부터 8개월간 정원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아름답고 특색있는 가로경관 창출

시는 지역 내 내산재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수목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한편, 계절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2억 원의 예산으로 도심권 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한 가로수를 바꿔주고, 가로수의 수형관리를 통한 수목 생장 촉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가지치기하는 한편, 가로수 병



해충 방제, 비료 주기, 관수작업, 월동준비 등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도로변 및 하천변, 녹지대 내 수목 가지치기, 풀베기, 풀매기, 덩굴 제거 등을 위해 시 자체 예산 19억 원으로 도시숲 지원관리단 68명을 채용해 효율적인 가로경관 유지관리는 물론,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시숲 지원관리단은 2월 중 선발 완료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 나무은행 운영사업 지속 추진

시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나무은행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나무은행은 기증받은 수목이나 도로 조성 및 산지 개발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고가의 수목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작년 만나무, 홍가시, 무궁화 등 138주의 수목을 도시숲 및 가로수에 재활용해서 약 4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생활권 내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한 숲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양질의 녹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명품 돌산갓' 생산기반 지원 추진

여수시가 돌산갓의 품질향상 및 명품화를 위해 돌산갓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돌산갓은 여수시 대표 특산품으로 돌산읍과 화양면에서 연간 3만 9,282톤을 생산하며 39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 작목이다.

시에 따르면 명품 돌산갓의 품질 유지를 위해 다년간 재배에 따른 땅심 저하, 토양 내 양분 불균형, 병해충 밀도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땅심 높이기 퇴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돌산갓 재배지역의 연작피해 예방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퇴비, 토양개량제, 전용비료를 지원하고 돌산갓 대체작목 보급을 통한 2기작 작물재배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여름철 물갈 생산을 억제하고 겨울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돌산갓 전용 비가림하우스를 보급하며,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동력 파종기, 운반기 등 농기계 지원과 드론 이용 병해충방제를 실시한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군, 현장맞춤형

농기계 실용 교육 실시

고흥군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용접기술 교육과 소형굴삭기 교육 2개 과정을 농가 부담없이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실선 용접기술 교육은 60명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3주간 운영할 예정이고, 소형굴삭기 실습 교육은 40명을 모집하여 3월 8일부터 5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활성화 촉진과 인건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며 용접기술과 소형굴삭기 작업기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할 예정이다.

실선교육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강사와 1:1 매칭 하여 수준 높은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형굴삭기 현장실습교육 또한, 응급정비요령 및 실제 농업 현장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해결능력 향상과 응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이는 등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영농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5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인정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이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2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순천만습지는 한국관광 100선이 시작된 2013년부터 5회 연속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2006년 국내 최초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세계적인 습지인 순천만습지는

전국에서 가장 자연적인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어 관광지이기 이전에 국제적 희귀조류 월동지로 각광받고 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정원산업을 선도하고 생태관광을 자원화·세계화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가 유치확정됨에 따라 정원을 순천시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별교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자발적 장보기 참여



보성군 별교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별교 5일장에서 전통 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별교읍 직원 3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팀별

로 조를 나눠 각기 다른 시간대에 장

보기에 참여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을 구매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선남부 별교읍장은 "예년 같았으면 설은 상인들이 가장 고대하는 대목이었는데, 코로나19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행정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지역에서 장보기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지역민과 고통을 분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별교읍행정복지센터는 오는 9일에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